

시키보 제품 제1사업부 - 연속 실켓사 편포 가격 인하로 확판

시키보의 제품 제1사업부는 연속 실켓 가공사 “피스코”로 짠 편포를 제1사업부의 중점 소재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판매를 확대하기로 하였다. 특히 이 편포는 여유 있게 생산하여 재고로 두고, QR(Quik Response)로 대응하고 있는 “테프니” 시리즈를 고객이 더욱 쉽게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낮추고, 일본 내 시장에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.

“테프니”는 65수 쌍사 평편(plain stitch)과 리브편(rib stitch), 이색 합연 편포 등 약 50가지 색을 상품화하였다. 2004년 10월의 니트 전시회에서는 신소재로서 88수 쌍사의 “베아” 평편 12색도 추가하였다. 특히 연속 실켓의 컬러 “모쿠”는 타사에 없는 소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.

일본에서도 면사를 연속적으로 실켓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 많지 않은데 시키보고난(江南)은 그중의 하나이다. 연속 실켓 가공사 “피스코”는 실에 잔털이 적으면서 실크와 같은 광택이 있고 소프트한 태가 나며, 옷의 형태가 잘 유지되고 그러면서도 차진 맛이 특징이다. 이 실로 편성한 여성복 옷감을 중심으로 신사 캐주얼, 스포츠용, 유아용으로 용도가 늘어나고 있다.

제품 제1사업부에서는 “테프니”를 잘 활용함으로써 연속 실켓 가공사 “피스코”의 시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. 이 “피스코”의 정번(定番)은 65수 쌍사인데 2003년부터 88수 쌍사, 110수 쌍사를, 2004년부터는 150수 쌍사로 구색을 갖추었으며, 이제는 면뿐만 아니라 “모달(modal)” 등의 레이온 혼용도 내놓고 있다. 매사 분야를 강화하기 위하여 “시마세이키제작소”와 공동으로 홀 가먼트 횡편기용 연속 실켓 가공사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. ♣